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전 필수 체크리스트

학사 학위와 취업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학비 부담이 적은 데다 계약 기업의 직원으로 일찍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하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에 지원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짚어봤다.

취재 이지혜 기자 wisdom@naeil.com  
도움말 오현석 교수(가천대학교 반도체설계학과)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운영하는 정비지원형 산학협력 제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와는 다르기 때문에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전국 22개 대학, 66개 학과에서 운영 중이며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채용하며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된다. 가장 큰 장점은 3년 만에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정부와 기업이 등록금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 때 이론과 실무 교육을 동시에 받고 2학년부터 바로 협력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퇴사하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하거나 학교에서 제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진학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가천대 반도체설계학과 오현석 교수는 “근로 시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지만 적극적이고 성실한 학생이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천대 반도체설계학과 3학년인 김성규씨는 “2학년 때부터 월~수요일에는 출근하고 목~토요일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 바쁘고 힘든 일정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안정적인 취업이 보장되지만 동시에 기업과 학생에게 명확한 의무와 책임 조건이 따른다. 재학 중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징계 해고를 당하는 등 학생의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될 수 있으며 희망 사다리 장학금이나 지원받은 취업장려금은 반환해야 한다.

표_ 초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시 점검 사항		
	세부 진단 내용	점검 사항
동기 부여와 목표 설정	<input type="checkbox"/> 선택한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일할 예정이다.	진로를 선택한 이유를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input type="checkbox"/> 지망하는 회사의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을 미리 조사했다.	근무 여건, 주요 직무, 조직 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보세요.
	<input type="checkbox"/>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강요가 아닌 나의 선택으로 결정했다.	타인의 조언보다 나만의 내적 동기로 결정하세요.
자기 주도성	<input type="checkbox"/>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과제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있다.	몸과 마음이 바쁜 일정에 쫓겨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과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나만의 체력 관리 방법이 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기 위해 체력은 필수. 운동 습관이나 수면 규칙을 정해보세요.
진로 비전 및 성장 계획	<input type="checkbox"/> 업무 시 어떤 피드백이라도 받아들이고 성장할 준비가 돼 있다.	부족한 부분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노력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학업과 근무를 포기할 경우 감수해야 할 사항을 알고 있다.	보다 신중하게 진로를 결정하게 도와줍니다.
	<input type="checkbox"/> 나만의 장기 커리어 로드맵이 있다.	학업과 근무 경험을 토대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돕습니다.

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 조정 등으로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했다면 학적은 유지된다. 다만 해당 학년의 필수 학점 절반 이상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6개월 이내에 타 기업에 재취업해야 한다. 재매칭을 통해 다시 취업하면 소속된 기업이 학생에게 다시 등록금을 지원한다.

### 취업 지름길 아닌 성장 발판으로 삼아야

초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사회 초년생인 학생이 직무와 조직 문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한다. 전남대 초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선후배가 함께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생이 실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이 멘토링 과정과 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담당 교수에게 제출하면 학점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무엇보다 초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취업을 보장받는 지름길이 아니라 학업과 실무를 병행하며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항만 선적·하역 물품의 검수와 효율화를 연구하며 중소 물류 기업 ‘아르고마린토탈’에 재직 중인 전남대 스마트ICT융합공학과 김주한씨는 일반고

에서 진로 상담을 통해 초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처음 접했다.

그는 “마침 장비 설계와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과와 계약한 기업을 충분히 검토해보니 오히려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어 진로를 확정할 수 있었다. 학교 실습 시간에 배운 장비 설계와 시스템 개발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리 전공과 직무에 대한 기초 역량을 다진다면 현장 적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빅데이터 등 IT 분야를 지망한다면 C언어나 파이썬, 데이터 베이스의 기초 문법 등을 미리 공부해두면 도움이 된다. 전기·전자 분야라면 전압·전류 법칙, 회로도와 배선도 도면 읽기의 기초를 익히고 PLC 기본 개념을 숙지하면 실무에 도움이 된다.

반도체설계학과를 지망한다면 반도체 내부의 전기 움직임을 설명하는 미적분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또 전자파의 기본 법칙을 설명하는 맥스웰 방정식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현장 학습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시간 관리 능력과 자기 주도성은 기본 덕목이며 실무에서 타인과 협업하는 방법을 익히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운다면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이 된다. @